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한유 시 학습과 수용*

金智英**

目 录

1. 서론
2. 고려와 조선 문집 속의 한유 시 학습 고찰
 - 1) 고려 시기
 - 2) 조선 시기
3.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한유 시 수용 양상
 - 1) 한유 시의 시적 수용 양상
 - 2) 한유의 인생 역정에 대한 개인적 수용
4. 결론

1. 서론

한유(768-824)는 중당 시기 고문운동의 대표주자로 그의 산문은 중국문단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그의 시가는 찬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데, 이는 그의 시가 이전 시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유가 시 속에 산문적인 요소를 끌어들인 以文爲詩의 수법을 사용해 작시했기 때문이다.¹⁾ 한유 시에 대한 평가는 평가에 따라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27-A00524).

** 서울대학교 中語中文科 講師.

1) 陳師道, 『後山詩話』, “한유는 문으로 詩를 지었고, 소식은 시로 詞를 지었다. 教坊 雷大使의 춤처럼 천하의 기교를 다했다 하더라도 요컨대 시의 본격이 아니다.(退之以文爲詩, 子瞻以詩爲詞, 如教坊雷大使之舞, 雖極天下之工, 要非本色.)”

상반되나 시의 영역을 이전보다 확대시킨 점이나 이후 송시의 특징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한유 시가 중국 詩史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하겠다. 한유 시는 우리나라 문인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 고서에서 한유 시에 대한 평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또한 그의 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점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한국 시화 속에서 한유 시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 시기 崔滋(1188-1260)가 지은 『補閑集』이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근세 시인들은 소동파를 숭상하였다.....文安公이 말하기를 무릇 지금 전장제도를 만들 적에 고사를 인용함에 글은 六經과 三史, 시는 『文選』과 이백·두보·한유·유종원이니 이 밖의 제가의 문집은 인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²⁾

소식을 숭상했던 당시의 시단에서도 한유 시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자는 문안공인 兪升旦(1168-1232)의 말을 들어 당시의 전장제도를 만들 때 인용할만한 것으로 『문선』·이백·두보·한유·유종원의 시를 언급하고 있다. 국가의 제도를 만들 때 한유 시를 모범으로 삼은 것은 한유 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적극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한유는 우리 선인들이 애호했던 문인으로 한유 시는 우리 선인들이 전범으로 삼아 학습하였으며 고려와 조선 시단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필자는 한유 시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의 문헌을 통해 우리 선인들이 한유 시를 어떻게 수용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필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조종업의 『修正增補韓國詩話叢編』(서울:대학사, 1997)을 주 텍스트로 삼고 이외에 한국 문집을 검토하여 한유 시 수용 관련 자료를 선별하였다. 본 논문은 우리 선인들의 한유 시 학습과 수용 양상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전개하기 위해 먼저 고려와 조선의 문집 속에서 한유 시

2) 崔滋, 『補閑集』, “近世尙東坡.....文安公常言, 凡爲國朝制作, 引用故事, 於文則六經三史, 詩則文選·李·杜·韓·柳, 此外諸家文集, 不宜據引爲用.”

학습과 관련된 언급을 1) 고려시기 2) 조선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한유 시 수용 양상을 1) 한유 시의 시적 수용 양상 2) 한유의 인생 역정에 대한 개인적 수용으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2. 고려와 조선 문집 속의 한유 시 학습 고찰

1) 고려 시기

고려 후기부터 근대에 이르는 역대의 시화를 수집하여 편찬한 조종업의 『修正增補韓國詩話叢編』³⁾에는 고려 시화로 李仁老의 『破閑集』, 李奎報의 『白雲小說』, 崔滋의 『補閑集』, 李齊賢의 『櫟翁稗說』 네 편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한유 시와 관련된 평론이 있는 것은 崔滋의 『補閑集』과 李齊賢의 『櫟翁稗說』이다. 한유 시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⁴⁾ 한국 시화 속에 한유 시에 대한 기록이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 시기 최자(1188-1260)의 『補閑集』이다. 이 책의 서문에 한유 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시를 배우는 자는 읊시로는 두보, 악부체로는 이백, 고시로는 한유와 소
식을 배워야 한다. 文辭에 있어서는 모든 체제가 한유의 문장 속에 다 갖
추어져 있으니 숙독하고 깊게 생각해보면 그 체재를 알 수 있다.⁵⁾

3) 조종업의 『修正增補韓國詩話叢編』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집인 『破閑集』(1220년)에서 근대의 『玉溜山莊詩話』(1970년)에 이르기까지 근 750여년에 걸쳐 간행된 역대의 시화를 엮어 놓았다. 여기에 언급된 시화는 129종인데, 그 가운데 목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이 15편이다. 따라서 실제 수록된 시화는 114편이다.

4) 한유의 在世기간은 우리나라 통일신라 36대 惠恭王 4년(768)에서 41대 憲德王 16년(824)까지이다. 한국 漢文學의 비조라 할 수 있는 崔致遠(856-?)의 글에서도 한유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통일 신라시기에는 한유 시문에 대한 기록은 찾아 볼 수 없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야 한유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한다.

최자는 시를 배우는 사람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인물로 두보·이백·한유·소식을 거론하고 있는데, 특히 한유에 대해서는 시문 모두를 학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한유 시 가운데서도 고시가 당시 문인들에게 학습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李齊賢(1287-1367)의 『櫟翁稗說』에는 우리 시인이 한유 시를 본떠 압운했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황경 초년에 덕릉이 황제의 곁에 있을 때, 현시하는 자가 있었는데, 支韻을 써서 ‘差(치)’자를 압운하니, 문사들이 다투어 화답하여 올리기를, 모두 ‘參差(참치)’라 달았다. 유독 두 사람만이 독특하게 달았는데, 한 사람은 ‘差差(치치)’라 하였으니, 한유의 “칼날의 희기가 시퍼렇고도 시퍼렇다(鋒刃白差差)”라고 한 것을 쓴 것이다. 또 한 사람은 ‘玉差(옥치)’라고 하였으니, 宋玉과 景差를 말한 것이다. 세상에 유행하는 송본 압운서의 상평 支韻의 ‘差(치)’자 아래 註에 “景差는 사람 이름이다”라고 했으므로, 이를 취하여 근거로 삼은 것이다.⁶⁾

당시 문인들이 황제에게 현시하는 시를 쓸 때 ‘差’로 압운해야 할 시구에 대부분이 ‘參差’라고 썼다. 유독 두 사람이 다른 글자를 썼는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差差’라고 썼다. 이것은 한유 시 〈送張道士〉 속의 “鋒刃白差差” 구절에서 따온 것이었다. 한유는 작사에서 남들이 잘 쓰지 않는 韻字와 시구를 즐겨 사용했는데,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도 한유를 본받은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또한 『櫟翁稗說』에는 당시 문인 吳世才(1133-?)가 한유의 詩體를 배워 작시에 뛰어났다고 기록한 내용이 있다.

- 5) 崔滋, 『補閑集·序』, “學詩者, 對律句體子美, 樂章體太白, 古詩體韓蘇, 若文辭, 則各體皆備於韓文, 熟讀深思, 可得其體.”
- 6) 李齊賢, 『櫟翁稗說』, “皇慶初, 德陵在輦下, 有獻詩者用‘支’韻押‘差’字, 文士爭和進, 皆押‘參差’. 唯二人獨異, 一云‘差差’, 用韓公‘鋒刃白差差’也. 一云‘玉差’, 謂宋玉·景差也. 世所行宋本押韻書, 上平支韻‘差’字下注云: ‘景差, 人名.’ 故取以爲證.”
- 7) 조고, <한국 시화 속의 한유 시 평가 연구>, 『중국문학』 제64집, 225쪽 재인용.

文順 이규보가 말하길 “선생의 시는 한유와 두보의 詩體를 배웠다. 그러나 그의 시는 많이 볼 수 없다.”라고 하였다. 『金居士集』속에 그의 시가 한편 실려 있다: “백 아릅이나 되는 큰 재목이지만 쓰일 데 쓰이지 못하고, 석 자가 되는 긴 부리이지만 말할 데 말하지 못하네.” 역시 노련하고 힘이 있어 칭송하고 떠받들 만하다.⁸⁾

이제현은 吳世才가 한유와 두보의 시체를 터득하였다고 언급하며, 오세재의 시가 힘차고 노련하여 칭송할 만하다고 높이 평하였다. 오세재에 대한 기록은 다른 문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李奎報(1168-1241)는 오세재에 대하여 「吳先生德全哀詞并書」에서 “시문을 지은 것은 한유와 두보의 체를 체득하여, 비록 목동이나 하인일지라도 이름을 모르는 자가 없었다.”⁹⁾고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려 시대에 이미 한유 시가 문인들의 본보기로 받아들여졌으며 한유 시를 학습하여 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조선 시기

조선 시화 가운데 한유 시와 관련된 평론이 많이 수록된 시화는 조선 중기 李睟光(1563-1628)의 『芝峰類說』과 조선 후기 李瀾(1681-1761)의 『星湖僊說』이다. 이외에 徐居正의 『東人詩話』, 成倪의 『慵齋叢話』, 尹春年の 『體意聲三字注解』, 許筠의 『鶴山樵談』, 梁慶遇의 『霽湖詩話』, 李植의 『學詩準的』, 金得臣의 『終南叢志』, 張維의 『溪谷漫筆』, 南龍翼의 『壺谷詩評』, 金萬重의 『西浦漫筆』, 李德懋의 『清脾錄』 등에 한유 시에 대한 평론이 보인다.¹⁰⁾ 이 가운

8) 李齊賢, 『櫟翁稗說』, “李文順公奎報謂 ‘先生爲詩學韓杜,’ 然其詩不多見, 金居士集中, 載其一篇有曰 ‘大百園材無用, 長三尺碌不言言.’ 亦老健可尙.”

9) 徐居正, 『東文選』 권22, 李奎報, 「吳先生德全哀詞并書」, “爲詩文, 得韓杜體. 雖牛童走卒, 無有不知名者.”

10) 한국 시화 속에 보이는 한유 시와 관련된 평론은 즐고 <한국 시화 속의 한유 시 평가 연구>(『중국문학』 제64집)에서 정리 분석하였다.

데서 한유 시 학습과 관련된 대표적인 언급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초기 徐居正(1420-1492)의 『東人詩話』에 문인 사이에 운자 사용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한유 시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보인다.

내가 전에 春坊의 여러 학사들과 입성으로 통운한 것에 대해 시비를 논한 적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두보는 詩聖으로 평생 통운자로 압운한 적이 없으니 <早發射洪縣南道中作> 같은 시의 경우 한편이 끝날 때까지 ‘緝’운을 썼다”고 말하기에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대는 두보의 시에 미숙하구려.....두보가 어찌 일찍이 통운에 능통하지 않았겠소? 한유는 하나의 시에서 6-7개의 통운자를 쓰는 등 중횡무진 자유자재로 두루 썼다오. 이를테면 <此日足可惜贈張籍>시가 이러한 것이오. 소식의 <贈季常>시에서도 통운하여 여섯 개의 운을 썼는데, 그대는 왜 통운자로 압운하는 것을 괴이하게 여긴단 말이오?”라고 하니 그 사람이 그제야 굴복하였다.¹¹⁾

근체시의 율격에서는 일반적으로 평성자로 압운하며 ‘一韻到底’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측성자인 입성의 글자로 통운하는 것은 작시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몇몇 시인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 입성자로 압운을 하거나, 하나의 시에 여러 개의 운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리 시인들 사이에 운자 사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을 때, 서거정은 시에서 얼마든지 통운할 수 있음을 한유의 <此日足可惜贈張籍> 시를 들어 논하였다. 서거정이 압운에 대한 평가로 한유 시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¹²⁾

실제 서거정(1420-1492)은 시를 지을 때 한유 시를 본받아 작시하였다. 成俔(1439-1504)의 『慵齋叢話』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達城(서거정의 封號)은 문장이 華美하고 시는 오로지 한유의 체를 본받

11) 徐居正, 『東人詩話』, “予嘗與春坊諸學士論入聲通押是非, 或曰: ‘少陵詩聖也. 平生未嘗通押, 如 <早發射洪縣> 詩, 終篇用韻韻.’ 予曰: ‘子於杜詩未熟.....老杜何嘗不通押乎? 至如昌黎則傍出六七韻, 乍離乍合, 縱橫泛溢, 如 <此日足可惜> 一篇是已. 東坡 <贈陳季常> 詩韻, 旁用六韻. 子何怪於通押乎?’ 或者乃屈.”

12) 줄고, <한국 시화 속의 한유 시 평가 연구>, 『중국문학』 제64집, 227쪽 재인용.

아 손 가는 대로 써내도 艷麗했다.¹³⁾

이 글에서 서거정이 한유 시를 본받아 작시하였으며 그 성과도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서거정은 26년간 文衡을 잡았으므로 당시의 시풍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의 한유 시에 대한 추종은 당시 문단 풍토에 일정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 孝宗때 金堉(1580-1658)은 한유·두보·이백 세 사람의 시를 모아 『三大家詩全集』을 간행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세 대가의 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이들 중 시를 배우려는 자가 세 대가를 버리고 익히지 않으면 함께 도모할 수가 없다. 한유의 시에서는 그 力量을 배우고, 두보의 시에서는 그 規模를 배우고, 이백의 시에서는 그 氣魄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¹⁴⁾

김육은 시를 배우는 사람이 한유·두보·이백 세 대가에게서 각기 배워야 할 점이 있음을 언급하며 한유 시를 통해 그의 역량을 배우기를 바랐다. 김육의 언급을 통해 당시 문인들이 한유 시의 호방한 필력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배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李植(1584-1647)은 노년에 『學詩準的』·『作文典範』·『科文工夫』 등의 글을 남겨 자제들의 작시공부에 전범을 마련하였다. 그는 『學詩準的』에서 시 학습에 있어 한유 시를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배율은 마땅히 杜詩로써 주를 삼아야 하지만, 그러나 심히 차례가 없어 배울 수가 없다. 짧은 것으로 절묘한 것을 배우는 것도 배우기가 쉽지 않으니 모름지기 한유와 유종원의 배율을 참고하여 시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¹⁵⁾

13) 成俔, 『慵齋叢話』 권1, “達城文章華美, 而其爲詩專倣退之體, 隨手輒艷麗.”

14) 金堉, 『潛谷遺稿』 권7, 「三大家詩全集序」, “而小子之欲學夫詩者, 捨三家, 無可與計者. 韓取其力量, 杜取其規模, 李取其氣魄.”

15) 李植, 『學詩準的』, “排律雖當以杜詩爲主, 然甚無次第, 不可學. 學短篇絕妙者, 且不易學, 須參以韓柳律, 以爲準的.”

李植은 두보는 배울에 뛰어나지만 차례가 없어 배우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며, 한유의 배울을 시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한유 시를 공부하며 느낀 점과 이를 배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요즘 시를 배우는 사람들은 한유 시로써 바탕을 삼고 두시로써 전범을 삼는데, 이는 五山(車天輅)과 東岳(李安訥)의 가르침이다. 石洲(權驪)는 唐律을 배웠지만 처음에 역시 한유 시를 배웠고, 孤竹(崔慶昌)은 만년에 재주가 마르고 기운이 쇠약해져 역시 한유 시를 읽었다. 나는 비록 학식이 천박하지만 한유 시를 전혀 읽으려 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사람의 권유를 받아 그 율시와 절구를 한차례 숙독해 보니, 바로 唐詩의 격률인지라 두시와 아울러 보는 것도 무방할 것 같다. 그 장편 걸작은 곧 양웅과 사마상여의 辭賦의 변형이었다. 한유 시를 읽느니 차라리 양웅과 사마상여의 사부를 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오직 늦게 배우는 사람이나 필력이 퇴보한 사람은 한유 시를 가려 뽑아서 백여 차례 읽는다면, 글을 받드는 것이 소학공부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듯이 혹 급한 병통을 구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재주와 학식이 다 넉넉한 사람은 꼭 대수롭지 않은 시에 힘을 들일 것이 없다.¹⁶⁾

이식은 자신이 한유 시를 배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유 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즉 절구와 율시의 경우는 한유와 두보 시를 함께 읽고, 장편은 양웅과 사마상여의 辭賦를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추천한다. 다만 늦게 공부하는 이나 필력이 퇴보한 이는 한유 시만을 뽑아 읽어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글을 통해 당시 많은 문인들이 한유 시를 전범으로 삼아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漢學四大家의 한 사람인 李延龜(1564-1635)는 그의 아들 李明漢(1595-1645)이 자신의 재능만 믿고 시문 암송하기를 즐겨하지 않자 웅장하

16) 李植, 『學詩準의』, “近代學詩者, 或以韓詩爲基杜詩爲範, 此五山東岳所教也. 石洲雖學唐律而初亦讀韓, 崔孤竹末年才潤氣萎亦讀韓詩. 吾雖學淺殊不欲讀韓, 既被諸公勸誘, 熟觀一遍其律絕, 固唐格也. 不妨與杜詩並看. 大篇傑作則乃揚馬辭賦之換面也, 與讀其詩寧讀揚馬之爲高也. 惟晚學筆退者抄讀百餘遍, 則如敬字之補小學功, 容可救急得力. 才學俱瞻者不必匍匐於下乘也.”

고 힘 있는 한유의 「남산시」를 千讀하게 하여 그 경박한 기세를 꺾으려 했다. 그는 204구로 된 장편의 「남산시」가 웅장한 스케일과 호방한 필체로 시의 필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여겼던 것이다. 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李延龜의 저의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남산시」를 다독하는 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한다.¹⁷⁾

이처럼 조선 문인들은 고려 문인들에 비해 한유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작시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었다. 중국문단에서 한유 작시법에 대한 찬반의 평가가 분분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문단에서는 한유의 시가 필력을 향상시키고 시의 역량을 더해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여겨 적극 학습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와 조선 문인들의 한유 시 수용 양상

1) 한유 시의 시적 수용 양상

고려 시대에는 이미 많은 문인들이 한유 시를 학습하였는데, 당시 시문에 뛰어난 사람을 한유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李齊賢은 <중암거사가 시 여덟 수를 보내와 도가에 들어올 것을 권하기에 차운하여 보내다(中菴居士贈詩八首務引之入道次韻呈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積翠低簷相媚嫵,	푸른 빛 처마에 나직하니 서로 아름답고
落紅浮水故縈回.	떨어진 꽃 물에 떠서 짐짓 돌고 있네.
園林鐘鼓眞清勝,	동산 숲 음악소리 참으로 좋고
題詠須憑吏部才. ¹⁸⁾	시문은 한유의 재주에 비기었네.

17) 金萬重 『西浦漫筆』.

18) 李齊賢, 『益齋亂藁』 권3.

.....

이 시는 증암거사가 보내온 시에 차운해서 쓴 것이다. 시구 속에 ‘吏部’는 한유를 가리키는데 한유가 穆宗때 유배에서 풀려나 吏部侍郎까지 올라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제현은 증암거사가 시문에 빼어났음을 한유에 견주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유가 시인으로써 당시의 롤모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시기 吳世才는 한유의 詩體를 터득하여 작시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고려 문인 林椿(생존년미상)은 자신의 친구 오세재를 칭하여 금세의 한유라고 일컫었는데, 그의 시 「한양에 사는 오세재가 방문하여 시를 지어 그에게 감사하다(漢陽吳世才見訪以詩謝之)」를 보기로 한다.

君才似文公, 學者多欽慕	그대의 재주는 한유와 같아 배우는 사람들이 기뻐 사모하네.
.....
何時與論文, 更見今韓愈. ¹⁹⁾	어느 때나 글을 논하며 금세의 한유를 다시 보게 될까?”

오세재는 당시 한유 시를 체득하여 시 속에 녹여낸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따라서 임춘은 자연스럽게 오세재를 금세의 한유라 칭하였다. 오세재의 작품 가운데 한유 시의 풍격이 보이는 「남의 운을 써서 창바위를 읊다(用人韻賦戟巖)」라는 시를 보기로 한다.

城北石攬攬, 邦人號戟巖. 迥擗乘鶴晉, 高刺上天威. 揉柄電爲火, 洗鋒霜是鹽. 何當作兵器,	성 북쪽에 높고 높은 바위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창바위라고 부르네. 멀리 학을 탄 썰과 부딪칠 것 같고 높이 하늘에 솟구친 巫咸을 찌를 것 같네. 세워놓은 창끝처럼 번갯불이 번뜩이고 씻어놓은 칼끝처럼 서릿발이 새하얗네. 어찌하면 병기를 만들어서
--	---

19) 林椿, 『西河集』 권1.

亡楚却存凡.²⁰⁾

초나라를 없애고 범나라를 남길까?

이 시는 창바위(戟巖)를 묘사한 시로써 창바위가 하늘을 찌를 듯 날카로운 위엄을 간직하고 있음을 잘 묘사하였다. 자유로운 전고를 사용해 창날 같은 바위로 병기를 만들어 휘두르고 싶다는 언급에서 강인한 기개를 느낄 수 있으며 한유 시의 스케일 크고 호방한 풍격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치 한유가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며 육혼산에 불이 난 것에 비유하여 지은 「陸渾山の 불」 한 수, 皇甫湜에게 화답하며 그의 운을 사용하여(陸渾山火一首和皇甫湜用其韻)²¹⁾를 연상시킨다. 과장된 문사와 수식으로 작가의 상상력이 잘 발휘된 시라 하겠다.

한유 시 가운데 가장 특징적이면서 찬반의 평가가 분분한 시로 「남산시」를 들 수 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자였던 成三問(1418-1456)은 한유의 「남산시」를 본 때 여러 학사들과 함께 「삼각산연구(三角山聯句)」시를 지었는데 이를 보기로 한다.

정통 임술년에 나는 박팽년·신숙주·이개·하위지·이석형과 함께 왕명으로 삼각산 진관사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때 공부하다 틈이 생기면 모여서 시를 지었다.(正統壬戌, 余與平壤朴彭年仁叟, 高靈申叔舟泛翁, 韓山李埏清甫, 赤村河緯地仲章, 延安李石亨伯玉, 受命讀書于三角山寬寺, 作業之暇, 相與酬唱.)

- | | | |
|---|-----------|-----------------------|
| 1 | 誰分混沌殼, | 누군가 혼돈을 깨뜨릴 때 |
| 2 | 爾生最大古.(仁) | 너는 그 태고 적에 생겼네.(박팽년) |
| 3 | 三峰高峯崖, | 세 봉우리 높이 솟아 |
| 4 | 萬目聳瞻睹.(泛) | 모든 사람 눈에 우뚝 보인다.(신숙주) |
| 5 | 磅礪蔽天地, | 몽게몽게 뒤섞여 천지 덮고 |
| 6 | 崇高作雲雨.(謹) | 솟구쳐서 비구름 일으키니.(성삼문) |

20) 李齊賢, 『櫟翁稗說』.

21) 한유의 「陸渾山火一首和皇甫湜用其韻」시는 陸渾지방 태수였던 皇甫湜이 보내온 시에 한유가 화운하여 지은 시로 총 59구로 된 7언고시이다. 이 시는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며 육혼산에 불이 난 것에 비유하여 지은 것이다.

- | | | |
|----|-----------|--------------------------|
| 7 | 幽棲丹穴鳳, | 봉황새 깊이 둥지 틀고 |
| 8 | 屏跡白額虎.(淸) | 흰 얼굴 늙은 호랑이 숨을 죽이네.(이개) |
| 9 | 擘開由巨靈, | 거령이 골짜기 쪼개고 |
| 10 | 奠高賴神禹.(仁) | 신우가 봉우리 세우니,(박팽년) |
| 11 | 以慈盤時大, | 하늘과 마주하고 있는데 |
| 12 | 寧與培塿伍.(泛) | 어찌 작은 언덕들이 겨류랴.(신숙주) |
| 13 | 設險護王公, | 험준한 곳 만들어 왕공을 지키고 |
| 14 | 降神生申甫.(謹) | 신이 내려와 신보가 되니,(성삼문) |
| 15 | 岱宗豈惟齊, | 태산이 어찌 어깨 겨루고 |
| 16 | 東山非獨魯.(淸) | 동산이 어찌 홀로 뽐낼까?(이개) |
| 17 | 乾坤費精英, | 천지는 화려하고 |
| 18 | 日月相吞吐.(仁) | 해와 달 쉬임없이 바뀌는데,(박팽년) |
| 19 | 鶴駕聆笙韻, | 학 타고 피리부는 소리 들리니 |
| 20 | 仙蹤尋洞府.(泛) | 신선 찾아 골짜기 헤매네.(신숙주) |
| 21 | 賦欲效南山, | 남산 같이 시 지으려 하나 |
| 22 | 才慙非韓愈.(謹) | 미천한 재주라 한유가 못 되었네.(성삼문) |
| 23 | 中藏幾丹丘, | 산 속에 단구가 몇 이런가 |
| 24 | 上有眞玄圃.(淸) | 산 위에 참 현포 있다네.(이개) |
| 25 | 蒼顏望何尊, | 푸른 숲 무엇을 우러르나 |
| 26 | 白頭知乃祖.(仁) | 흰 봉우리 그 조상으로 알고 있네.(박팽년) |
| 27 | 鹿麕隔羅網, | 사슴 사자는 그물 멀리 있고 |
| 28 | 松檜離斤斧.(泛) | 소나무 회나무도 도끼 멀리 있네.(신숙주) |
| 29 | 截然斷地脈, | 단호하게 지맥을 자르고 |
| 30 | 悠若尋天柱.(謹) | 유유히 하늘 받치고 있네.(성삼문) |
| 31 | 銘功鄙蕪然, | 인간이 세운 공 초라하니 |
| 32 | 封禪非梁父.(淸) | 하늘 제사에 양보음을 읊으리.(이개) |
| 33 | 作鎮黃圖首, | 진을 쳐 황도에 머리가 되고 |
| 34 | 流形赤縣股.(仁) | 내리 뻗어 적현 다리 되네.(박팽년) |
| 35 | 望喜歎危壯, | 아찔한 모습 보기에 즐거우나 |
| 36 | 登憂僂僂苦.(泛) | 오르려니 힘들 것 같구나.(신숙주) |
| 37 | 巖巖列崖石, | 늘어선 암벽 바위들 높기도 높고 |
| 38 | 濟濟多棒樁.(謹) | 울창한 나무 숲 아름답기도 하다.(성삼문) |
| 39 | 鼎立無尊卑, | 술 발 같이 서 있어 귀천이 없으니 |
| 40 | 人揖孰賓主.(淸) | 누구를 주인으로 알고 읊해야 하나.(이개) |
| 41 | 參天絕躋攀, | 높은 하늘 오르지 못하니 |
| 42 | 郊國用斤斧.(仁) | 변경에서 나라 넓히려 군사 쓰네.(박팽년) |

- 43 峰危胥靡愁, 아찔한 봉우리들 서로 쓰러질까 걱정되고
 44 鶴穩仙儂聚.(泛) 골짜기 고요하니 신선들 몰려든다.(신숙주)
 45 羊脂藏璞玉, 양지옥 속에 박옥 숨겨 있고
 46 鵝管生鐘乳.(謹) 아관석에서는 종유석이 생기네.(성삼문)
 47 冬雪多瑤臺, 겨울엔 아름다운 누대에 눈 쌓이고
 48 春風亂花塢.(淸) 봄에는 꽃 언덕에 바람 어지럽네.(이개)
 49 仞九陋虧簣, 아홉 길 쌓다 한줌 흙 모자라 누추하고
 50 尺五欺韋杜.(仁) 측근에서 천자 속여 일 그르치네.(박팽년)
 51 列岫競踰躄, 여러 봉우리들 다투어 늘어섰고
 52 孤岑獨踽踽.(泛) 외로운 봉우리만 홀로 고독하네.(신숙주)
 53 攢峰森矛戟, 봉우리들 모여서 창칼같이 늘어섰고
 54 靈籟奏韶武.(謹) 신선 통소는 소무 연주하네.(성삼문)
 55 淙淙石上泉, 돌위 개울물 졸졸대며 흐르고
 56 鬱鬱煙中樹.(淸) 안개 속의 숲은 깊고도 깊네.(이개)
 57 固知舉石崇, 큰 돌만 귀하게 여김이 분명하니
 58 莫讓微塵萬.(仁) 작은 먼지 하나 보이지 않네.(박팽년)
 59 對陣巖馳突, 암석들 모두 대진하여 부딪치니
 60 臨幾分黨部.(範) 시세 따라 편을 갈랐구나.(신숙주)
 61 萬古分向背, 만고세월 향배가 나뉘었고
 62 千林紛喜怒.(謹) 온 숲에 희노애락 엮혔네.(성삼문)
 63 泰運自興起, 큰 운세 절로 일어날 손
 64 神功爲支柱.(淸) 신이 세운 기둥 같네.(이개)
 65 煙生肌上白, 안개가 일어나 몸 위에 하얗게 오르고
 66 雪積周邊監.(仁) 눈이 쌓여 주변이 두터워지네.(박팽년)
 67 寒風吹正急, 찬바람이 심히 몰아치니
 68 瘦骨病新瘡.(泛) 마른 몸에 병이 들겠네.(신숙주)
 69 奇建固難形, 울퉁불퉁한 산세 형태를 알 수 없고
 70 怪特不可數.(謹) 괴이하고 특이하여 헤아릴 수 없네.(성삼문)
 71 萬壑酣笙鍾, 온 골짜기에 통소소리 종소리 한창이고
 72 天林齊鼓舞.(淸) 온 숲이 북소리 장단 따라 춤추네.(이개)
 73 林轉訝驚趨, 나무가 놀라 돌아서 달아나니
 74 聲回看嬉侮.(泛) 음악소리 돌아보며 즐거워 조롱하네.(신숙주)
 75 邊城不動塵, 변방이 고요하니
 76 孝子無陟帖.(謹) 효자가 산에 오를 일 없네.(성삼문)
 77 龍蟄噓雲氣, 용이 몸 감추고 구름 기운 불어대니
 78 新藏起煙炷.(淸) 신선은 숨어서 안개 심지 일으킨다.(이개)

- | | | |
|-----|-----------|---------------------------|
| 79 | 石燈互盤回, | 석등이 빙 둘러 불 밝히니 |
| 80 | 招提相旁午.(仁) | 절에는 사람들 북적이네.(박팽년) |
| 81 | 谷應聞寒鐘, | 골짜기엔 쓸쓸한 종소리 메아리 치고 |
| 82 | 溪香知宿莽.(泛) | 냇물 향 그윽하니 숲이 우거졌구나.(신숙주) |
| 83 | 如太行蔽秦, | 태행산이 진나라 가린 것 같고 |
| 84 | 若終南鎮鄂.(謹) | 종남산이 호나라 지킴 같구나.(성삼문) |
| 85 | 或如牛馬羣, | 소와 말이 뛰는 것 같기도 하고 |
| 86 | 有似旌旗豎.(淸) | 깃발을 세워 노은 것 같기도 하다.(이개) |
| 87 | 初疑削梨栗, | 처음보니 배와 밤을 쌓아 놓은 듯하더니 |
| 88 | 却訝積倉廩.(仁) | 모두가 노적한 미곡이니 놀랍구나.(박팽년) |
| 89 | 霧捲猶豁硯, | 안개가 걷혔을 때 텅 빈 골짜기에는 |
| 90 | 雲深若盲瞽.(泛) | 구름 덮으니 아무것도 안보이네.(신숙주) |
| 91 | 仰者立驕將, | 올려보면 수레에 올라선 장수 보이고 |
| 92 | 低則伏降虜.(謹) | 내려보면 무릎 꿇은 포로들 보이네.(성삼문) |
| 93 | 松檜年深老, | 소나무 회나무 아름답기로 자랐고 |
| 94 | 巖崖歲久壘.(淸) | 오래된 암벽은 사람을 미혹하네.(이개) |
| 95 | 陽春氣融融, | 따뜻한 봄볕에 기운이 넘치고 |
| 96 | 草木光昭昭.(仁) | 초목은 밝게 빛나네.(박팽년) |
| 97 | 朱明布新律, | 아름다운 새 음률 울려 퍼지면 |
| 98 | 茂林增翠堵.(泛) | 우거진 숲은 더욱 푸르러 보이네.(신숙주) |
| 99 | 白帝扇金風, | 가을 신의 부채는 황금바람 일으키고 |
| 100 | 紅樹照玉宇.(謹) | 단풍은 옥우를 밝게 비추리.(성삼문) |
| 101 | 水落增憔悴, | 잇사귀 떨어져나가면 날로 초췌해지고 |
| 102 | 形枯失媚嫵.(淸) | 메마른 모습에 요염함을 잃을 걸세.(이개) |
| 103 | 一山儘難窮, | 산 모습 다할 길 없으니 |
| 104 | 四時景可取.(仁) | 사시로 경치가 불만하네.(박팽년) |
| 105 | 樵聽橫曉笛, | 나무꾼은 새벽 피리소리 듣고 있고 |
| 106 | 僧聞喧夜鼓.(泛) | 스님들은 밤 북소리 듣고 있네.(신숙주) |
| 107 | 安貼安周鼎, | 평안한 모습은 주나라 때 모습이고 |
| 108 | 危峩載殷斧.(謹) | 아찔한 형세는 은나라 때 모습이네.(성삼문) |
| 109 | 儼然大帝立, | 우뚝한 봉우리 대제가 서 있는 모습이고 |
| 110 | 簇若君臣扈.(淸) | 울망졸망 봉우리 호종 신하 모습이네.(이개) |
| 111 | 西臨津寬寺, | 서쪽에는 진관사가 있고 |
| 112 | 南壓漢江滸.(仁) | 남쪽으로 한강물 굽어보네.(박팽년) |
| 113 | 小隣鼓而及, | 가련한 작은 봉우리 발돋움해야 보이니 |
| 114 | 大厭昂不俯.(泛) | 큰 봉우리 고개 곳곳이 세우고 있네.(신숙주) |

- | | | |
|-----|--------------------------|--------------------------|
| 115 | 上摩明星燄, | 위로 부딪치는 밝은 별은 반짝이고 |
| 116 | 下瞰周原膺.(謹) | 아래 굽어보이는 넓은 들 아름답네.(성삼문) |
| 117 | 禪社茶何冷, | 참선 끝나니 차가 이리 차가운고 |
| 118 | 村墟酒須酤.(淸) | 시골 주막에 잘 익은 술 생각나네.(이개) |
| 119 | 窮經尋山室, | 속세를 헤매다 산사에 찾아와 |
| 120 | 願神受天祐.(仁) | 심신 바로 하여 하늘의 복을 받네.(박팽년) |
| 121 | 朝夕對蒼翠, | 조석으로 푸른 산 대하고 |
| 122 | 坐臥尋訓誥.(泛) | 앉으나 누우나 고문 경서 익히네.(신숙주) |
| 123 | 賦詠雖酷好, | 시가 읊는 것 비록 몹시 즐거우나 |
| 124 | 學術卽羸祖.(謹) | 학문은 아직 거칠기만 하네.(성삼문) |
| 125 | 願乞山英靈, | 산속의 영령에게 비노니 |
| 126 | 聊益我肺腑. | 오로지 우리들 마음을 채워주사, |
| 127 | 用以期遠大, | 원대한 앞날에 쓰임 있게 하시고 |
| 128 | 致身可相輔.(淸) ²²⁾ | 신명 바쳐 나랏일 감당케 하소서.(이개) |

이 시는 1442년(세종24년) 성삼문이 집현전 학사 다섯 사람과 함께 삼각산 津寬寺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 할 때 지은 것이다. 시 속에서 성삼문이 “남산 같이 시 지으려 하나, 미천한 재주라 한유가 못 되었네(賦欲效南山, 才慙非韓愈)”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삼각산을 제재로 한유의 「남산시」를 본 떠 지은 것이다. 시의 내용에 따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제1구-제20구까지는 천지의 혼돈 속에서 만들어진 삼각산의 생성과정을 묘사하며, 이 산은 못 산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제21구-제116구까지는 「남산시」를 본떠 짓겠다고 표명하고 삼각산의 모습과 산의 형세를 담아내었는데, 산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깎아지른 듯한 아찔한 모습까지 여러 측면에서 묘사하였다. 즉 산의 봉우리·암석·골짜기·나무·넷물·초목·사계절의 모습·햇빛·새·산사·스님·나무꾼 등 여러 제재를 가지고 삼각산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내었다. 제117구-제128구까지는 산 속에서 공부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묘사하며 자신들이 나랏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기원을 담아내었다. 이 시의 마지막 네 구는

22) 成三問, 『成謹甫集』.

「남산시」의 마지막 구 “일찌기 祠官들에게 들으니, 향을 맡고 강림하여 흠향 하신다 하니, 화려하게 노래를 지음은, 오로지 신에게 보답하는 제사를 도우려 하는 것 뿐입니다.(嘗聞於祠官, 芬芬降歆嗅. 斐然作歌詩, 惟用贊報醜.)”의 구절을 본 떠 산신에게 이 시를 바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남산시」는 한유가 去聲 ‘宥운’에 속하는 운자 102개를 사용해 204구로 엮은 장편시로 독창적인 수법과 기교로 남산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삼각산연구」는 上聲 ‘麴운’의 운자를 가지고 여섯 명의 작가가 聯句하여 삼각산의 모습을 웅장하고 위엄있게 묘사한 총 128구의 장편고시이다. 시의 힘 있는 전개나 웅장한 필법과 각양각색의 모습을 표현한 점은 한유의 「남산시」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한유 한 사람이 지은 「남산시」와는 달리 이 시는 여섯 명의 작가가 聯句하여 쓴 시여서, 시의 전개가 일관되지 않거나 비슷한 내용이 겹치는 등의 문제점이 보인다. 아마도 聯句詩의 특성상 시의 구성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감흥에 따라 돌아가며 써내려 가다보니 생긴 점인 것 같다. 반면 여러 사람이 삼각산의 모습을 읊다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서술하여 시의 내용이 더욱 풍부해진 측면도 있다. 「삼각산연구」시가 「남산시」를 본떴지만 「남산시」와 달라진 점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학자 이황(1501-1570)의 시 속에서도 한유 시를 본 떠 지은 작품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시 「임사수가 영조사의 종사로 의주로 떠나는 길을 송별하다(送林士遂以迎詔使從事義州三首)」를 보기로 한다.

不數林間喚雨鳩,	숲속에서 비를 부르는 비둘기를 책망 마오
海東雙鳥起千秋.	해동의 한 쌍의 새가 천추에 한번 난다오.
爭看月斧揮神匠,	먼저 보리라 달도끼 휘두르는 신의 솜씨를
血指應難據一頭. ²³⁾	서투른 솜씨로는 한 자리도 얻기 힘드리라.

이 시는 이황이 迎詔使의 종사로 떠나는 이사수를 전별하며 지은 것이다.²⁴⁾

23)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2.

24) 中宗이 승하한 뒤 을사년에 명나라 황제가 두 번이나 조사를 보내어 위문하였는데, 그때 임사수가 종사로 의주 길을 떠났다.

제2구의 ‘海東雙鳥’는 한유의 「쌍조시(雙鳥詩)」 가운데 “한 쌍의 새가 해외에서 와서, 날아 날아 중국에 왔네.(雙鳥東海來, 飛飛到中州.)”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또한 제4구의 ‘血指’는 한유의 「유종원을 위한 제문(祭柳子厚文)」의 ‘숨씨가 서투른 목수는 세상에 쓰이어 나무를 깎다가도 손가락에 피를 흘리며 얼굴에 땀을 흘리지만, 유능한 목수는 쓰이지 못하여 팔짱 끼고 구경한다.(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旁觀, 縮手袖間.)’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한유는 자신은 서투른 목수와 같지만 관리에 등용되었고, 유종원은 유능한 목수지만 관리로서 높은 자리에 등용되지 못하였음을 읊었다. 이를 따서 이황은 임사수를 신의 숨씨를 가지고 있는 유능한 인재로 보았고, 서투른 숨씨를 가진 자신은 감히 따라갈 수 없음을 읊은 것으로 한유의 표현을 본 떠 잘 활용하였다 하겠다.

다음은 「남명 조식과 청향 이원과 나는 모두 신유년생이다. 근자에 이원이 조식에게 한 수의 절구와 세 수의 절구를 보내왔다. 그 문사가 노인의 마음에 느끼게 하는 바가 있어 차운해서 이원에게 부치고 조식에게 보여주라고 하였다.(南冥曹君健仲清香李君君浩與余, 皆生於辛酉. 近李君寄示南冥一絕并其詩三絕. 其言深有感於老懷, 次韻, 寄李君, 兼示南冥云.)」라는 긴 제목의 시를 보기로 하자.

.....	
同庚霜雪滿頭吹,	동갑으로 온머리가 백발이 되어
共歲今方百九奇.	함께 살아온 나이 셋이 합이 192세라오.
安得孟韓俱變化,	어찌하면 맹교와 한유처럼 변하여
雲龍相逐不相離. ²⁵⁾	구름과 용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으리오?
.....	

이 시는 이황이 동갑인 조식과 이원 세 사람의 우정이 돈독하기를 바라며 지은 시이다. 시 속의 ‘安得孟韓俱變化, 雲龍相逐不相離.’구는 한유의 시 「취하여 맹교가 떠나감을 만류하다(醉留東野)」에서 촉발되어 지은 것인데, 한유 「醉留東野」시의 마지막 네 구절을 보기로 하자.

.....
25) 李滉, 『退溪先生續集卷』 권2.

吾願身爲雲,	원하오니 내 몸은 구름이 되고,
東野變爲龍.	맹교는 변하여 용이 되기를.
四方上下逐東野,	동서남북 위아래로 맹교를 쫓아다니니,
雖有離別無由逢. ²⁶⁾	비록 이별이 있다 해도 다시 만나지 못할 리 없네.

이 시에서 한유는 맹교(字는 東野)와의 깊은 우정이 영원하길 빌면서, 두 사람의 우정이 용과 구름과 같이 밀접해 서로 이별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내었다. 이황은 한유의 이 같은 표현을 빌어 조식과 이원과의 우정이 한유와 맹교의 우정처럼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표현한 것이다.

다음은 「신중돈의 <눈 속에서 매화를 찾으며> 시의 운율을 따라 짓다(愼仲惇叙雪中尋梅韻)」를 보기로 한다.

大雪漫漫朔次飄	큰 눈 가득하고 삭풍이 나부낄 때
尋梅情境自迢遙	매화를 찾는 정경 스스로 가득하네.
令人却憶韓公句,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한유의 글귀 생각나게 하니
妙在行天馬度橋. ²⁷⁾	다리를 건너는 말이 하늘에 오르는 듯한 묘함이 있네.

이 시는 신중돈의 「叙雪中尋梅」시를 보고 그 운에 따라 지은 것이다. 제 3구에서 밝혔듯이 눈보라 치는 속에서 매화를 찾는 모습은 한유의 시를 떠올리게 하였다. 이에 제4구에서는 한유 「춘설(春雪)」의 “연못을 엿보는 난새는 거울 속에 들어가는 듯하고, 다리를 건너는 말은 하늘을 오르는 듯하네.(入鏡鸞窺沼, 行天馬度橋.)”라는 시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상에서 고려와 조선 문인들이 한유 시를 수용한 양상을 선인들의 작품을 통해 살펴보았다. 고려 시대는 당시 시문에 능통한 이들을 한유에 비유하거나 당대의 한유라 칭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람 오세재는 한유의 시체를 터득하여 자신의 시에 녹여내어 당대의 한유라는 칭호를 얻었다. 조선 시대 성삼문 등은 한유의 「남산시」를 본 떠 「삼각산연구」를 지었고, 이황은 자신의 시 속에

26) 錢仲聯, 『韓昌黎詩繫年集釋』, 58쪽.

27) 李滉, 『退溪先生文集』 권5.

한유의 시구를 차용하여 작시하였다. 조선의 문인들이 한유 시를 적극 수용하여 시 속에 담아내었음을 알 수 있다.

2) 한유의 인생 역정에 대한 개인적 수용

우리 선인들은 한유를 애호하여 그들의 시 작품 속에 한유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아내었다. 고려 시대 李仁老(1152-1220)는 한유의 시문이 唐代에 우뚝섰음을 시로 표현하였다. 그의 시 「백거이의 화상을 최태위에게 바치며 (白樂天真呈崔太尉)」를 보기로 한다.

唐文渾渾世莫及,
三變終爲一王法.
韓公逸氣吞荀楊,
詭然虎鳳謝羈鞅.
柳州柳子亦精敏,
傲雅依騷多綴緝.
二公於文俱有功,
唯韓直節千仞立.
是時元白亦齊驅,
金春玉應工篇什.
花坊酒肆競吟諷,
馬走牛童盡收拾.
雷轟雖負一時譽,
正如韓柳不同級.²⁸⁾

.....

당나라 문장 옹혼하여 세상이 따르지 못하지만
세 번 변하여 한 나라의 법이 되었다.
한유의 뛰어난 기운은 순자와 양옹을 삼키어
찬란한 호랑이와 봉황이 굴레와 그물을 벗어났도다.
유주의 유종원 정묘하고 영민하여
소아를 모방하고 이소를 의지하여 지은 글이 많았다.
두 사람은 모두 글에 공이 있지만
한유의 곧은 절개는 더욱 우뚝하였다.
그 때에 원진과 백거이도 나란히 달려
금으로 주면 옥으로 응하여 좋은 글이 많았다.
꽃집과 술집에서 다투어 읊으면
마부와 목동들이 모두 주워 모았다.
우레 같은 울림은 비록 한 때의 이름은 얻지만
한유와 유종원 비키면 같은 급이 못 되었다

이인로는 시 속에서 唐代 문단의 변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한유가 뛰어난 기운과 호방한 문필로 순자와 양옹의 글을 뛰어 넘었고, 『시경』과 『초사』의 정신을 계승하여 중국 정통의 漢魏 문장을 회복하였음을 말하였다. 이는

28) 차충환·김진영 역주, 『미수이인로시집』, 122-125쪽.

당대의 문장이 우뚝 서는 데 한유의 시문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다.

조선 초기 李詹(1345-1405)은 「한유와 유종원을 위해 탄식하다(韓柳歎)」라는 고시를 지어 한유와 유종원에 대한 마음을 시에 담아내었다.

君不見韓退之,	그대 한유를 보지 못하였는가?
文章可起八代衰.	문장은 가히 팔대의 쇠약함을 일으킬 수 있었네.
又不見柳子厚,	그대 유종원을 보지 못하였는가?
天奪馳驅高步驟	하늘이 굴레를 벗겨 높은 걸음으로 달리게 하였네.
元和間共南流,	원화 연간에 모두 남쪽으로 유배되어
韓爲潮州柳爲柳州.	한유는 조주로 유종원은 유주로 가니,
虺蛇爭結纏如舟,	독사는 서로 우글거리고 악어는 배 만하였으며
叵堪瘴厲恒憂愁. ²⁹⁾	瘴毒을 견디기 어려워 항상 근심으로 지냈네

이 시에서 李詹은 한유가 문장에서 팔대의 쇠약함을 떨쳐 일으켜 유가의 정신을 회복시킨 인물임을 상기하고 있다. 그런 대문인이 불우하게도 독사와 악어가 우글거리는 潮州로 유배 가서 힘든 생애를 보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시로 표현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丁若鏞(1762-1836) 역시 시 속에 한유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아내었다. 그의 시 「조주로 편적 당한 한유 선생(潮州謫客韓先生)」을 보기로 한다.

汪洋者河,	길고 넓은 건 강하이고
磊砢維嶽.	바위가 쌓인 것은 산악일세.
椎碎綺麗,	기려한 사록문 쳐부수어
剗平彫琢.	조탁을 없애 버렸네.
力障狂瀾,	미친 물결을 힘써 막아
澄清其濁.	흐린 물을 맑게 했네.
首撲詭誕,	깨탄한 학설을 앞장서서 쳐부수어

29) 徐居正, 『東文選』 제8권.

高標正學.	정학을 높이 표방했네.
蠻烟海瘴,	남쪽 바다 瘴氣 속에서
苦操彌學. ³⁰⁾	역경 중에도 지조 지키며 학문을 전파했네.

이 작품은 이전에 폄적 당했던 屈原·賈誼·李白·韓愈·蘇軾·蔡元定 등 6인을 기린 「폄적 당한 여섯 어르신 의 화상찬(謫中六夫子畫像讚)」 가운데 하나로 한유에 대해 쓴 것이다. 이 글에서 정약용은 한유가 사육문 위주의 문풍을 바로잡은 공로와 「進學解」에서 밝힌 바와 같이 老佛의 이단을 배척하고 유학으로 회귀시킨 공을 포양하였다. 아울러 한유가 潮州刺史로 폄적되었을 때도 進士 趙德을 시켜 조주 사람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한 文行을 높게 평가 하였다. 18년 동안이나 유배생활을 했던 정약용은 한유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점을 발견하였고, 한유를 통해 많은 배움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한유를 사모하여 한유의 순탄치 못한 삶에 자신의 운명을 대비시켰는데, 그의 시 「애석한 마음을 읊다(惜志賦)」를 보기로 한다.

.....	
愈錢窮而益附兮,	한유는 곤궁을 버리려 했으나 더욱 달라붙었고
瞻詡才亦遭貶.	소식은 재주를 자랑했으나 역시 좌천을 당했네.
既戴命而莫違兮,	하늘의 명은 어길 수 없나니
又何爲乎內慊. ³¹⁾	어찌 마음 속에 불만을 가지리.

이 시는 정약용이 1801년 경상도 長鬐로 유배 갔을 때 쓴 시이다. 정약용은 유배라는 불우한 상황에 있으면서 한유와 소식을 생각하며 그들 역시 자신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상기하였다. 한유는 「송궁문(送窮文)」에서 자신에게 붙어사는 五鬼인 智窮·學窮·文窮·命窮·交窮을 진별하려 했으나 도리어 이 귀신들을 上座에 앉혔던 것과, 소식이 재주를 자랑했으나 오히려 폄적 당했던 것을 회상하고, 자신의 운명을 이들의 처지에 비유하며 유배를

30)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12권.

31)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1권.

천명으로 승화하면서 불만을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정약용은 또한 자신 처럼 유배 갔었던 한유를 생각하며 「고인의 행적을 생각하다(我思古人行)」를 지었다.

我思古人思韓愈,	내가 생각하는 옛 분 한유를 생각하네
座攻佛法謫南土.	불교를 공격한 죄로 남쪽으로 귀양 갔네.
韓愈八千餘里謫.	한유가 귀양 간 곳은 팔천여 리 먼 곳인데
彼千我百殊今古.	한유는 팔천 리 나는 팔백 리 고금이 다르네.
自今勿言萍梗悲,	지금부터 귀양살이 슬픔을 말하지 말고
我思古人恢器宇. ³²⁾	그 옛 분을 생각하며 그릇을 키워야지.

이 시는 총 3장 6구로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장이다. 한유는 刑部侍郎 시절 그의 나이 52세 때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 憲宗의 노여움을 사서 8천리나 떨어진 潮州刺史로 좌천되었다. 정약용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되었는데 그 곳은 서울에서 8백 리 떨어진 곳이다. 한유가 팔천 리 먼 곳인 潮州로 유배를 갔고, 자신은 8백 리 떨어진 장기로 유배 온 것을 대비한 것이다. 정약용은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한유를 생각하며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하며 유배의 아픔을 우회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정약용은 한유 시 가운데서도 특히 「산석(山石)」시를 좋아했는데, 그의 시 「노인의 즐거운 일 여섯 수, 백거이체를 본 떠 짓다(老人一快事六首 效香山體)」를 보기로 한다.

老人一快事	늙은 내게 한 가지 즐거운 일은
縱筆寫狂詞.	붓 가는 대로 내키는 말 쏟는 것.
競病不必拘,	聲病을 범하지 않으려 신경 쓰지 않고
推敲不必遲.	고치고 다듬느라 미적이지 않네.
興到即運意,	흥 나면 곧 바로 뜻을 움직이고
意到即寫之.	뜻이 되면 곧 바로 글로 쏟아낸다.
我是朝鮮人,	나는야 조선사람

32)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4권.

甘作朝鮮詩。
 卿當用卿法，
 迂哉議者誰。
 區區格與律。
 遠人何得知。
 凌凌李攀龍，
 嘲我爲東夷。
 袁尤槌雪樓，
 海內無異辭。
 背有挾彈者，
 奚暇枯蟬窺。
 我慕山石句，
 恐受女郎嗤。
 焉能飾悽愴，
 辛苦斷腸爲，
 梨橘各殊味，
 嗜好唯其宜。³³⁾

조선 시 즐겨 지으리.
 그대는 그대 방식 쓰면 되지
 어리석네! 이런저런 말 많은 자 누구냐.
 번거로운 격률을
 이방인이 어찌 안단 말인가?
 쌀쌀맞은 李攀龍은
 우리를 東夷라 조롱했지.
 袁宏道와 尤侗이 李攀龍을 쳐도
 중국 땅에 누구도 군말하지 않는 까닭은,
 탄알 끼고 노리는 자 뒤에 있어
 마른 매미 옛볼 겨를 없어서였네.
 나는 한유의 「산석」시구를 사모하나니
 계집애의 비웃음 살까 두렵네.
 억지 슬픔 꾸며내어
 애간장 부러 끊을 수야 없지.
 배와 곶은 맛이 달라
 입맛 맞는 게 제각각인 법.

이 시는 1832년 정약용이 72세 때 지은 것으로 총 6수 가운데 다섯 번째 시이다. 정약용은 이 시에서 조선인은 조선의 시풍에 맞게 시를 지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중국문단의 변화를 따라 그것을 추종하려고 급급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문학적 실천을 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러기에 한유의 「산석」시에서 “인생은 이와 같으면 스스로 즐길 만한데, 어찌 하필 웅색하게 남의 고삐에 묶이랴.(人生如此自可樂, 豈必局束爲人鞿.)”라고 한 삶의 태도를 사모한다고 한 것이다. 정약용은 한유 시의 유유자적하고 담담한 풍격을 좋아하였다. 그는 「삼월 이십칠일 작은 배를 타고 충주로 가며 도중에 배 안에서 읊다(三月二十七日, 乘小艫赴忠州舟中雜吟)」라는 시에서도 「산석」시를 언급하고 있다.

.....

33)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6권.

秋柳銷魂語,	가을버들은 혼이 사라지는 소리를 내고
春帆倚渚時.	봄 배의 돛은 물가에 의지할 때로세.
未知山石句,	모르겠는가 한유의 「산석」 구가
何似女郎詩. ³⁴⁾	어찌 계집아이 시와 같을 건가.

이 시는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에서 풀려난 후 향리에서 소요할 때 쓴 시이다. 봄날 배를 타고 가며 느낀 구속됨 없이 홀가분한 정회는 수식 없고 자연스러운 한유의 「산석」시 떠올리게 하였다. 마지막 두 구는 元好問이 『論詩絕句』에서 한유의 「산석」과 宋 秦觀의 「춘일(春日)」을 대비하여 논하면서 秦觀의 시를 女郎의 시라고 평한 것을 용사한 것이다.³⁵⁾

우리 선인들은 그들의 작품 속에 한유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하였는데, 주로 한유가 당대 문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과 그가 조주로 펴적당해 간 것을 안타까워하는 내용이다.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을 보내며 한유의 삶을 통해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처지를 위로받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문인이 한유의 인생역정을 개인적으로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결론

이상에서 고려와 조선 문인들이 한유 시를 어떻게 학습하고 수용했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려와 조선 문집 속에 나타난 한유 시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한유에 대한 기록은 고려시대 최자의 『보한집』에 처음 보이며 이후 고려와 조선시기의 시화와 문집 속에 한유 시 학습과 관련된 기록이 수록되어

34) 丁若鏞, 『茶山詩文集』 제6권.

35) 元好問, 『論詩絕句三十首』(其二十四), “진관의 시 ‘정이 있는 작약은 봄 눈물을 머금었고, 기력없는 장미는 저녁 가지에 누었다’라는 구절은, 한유의 「산석」구를 들어 비교해 보면, 계집아이에 시와 같음을 비로소 알겠네.(有情芍藥含春淚, 無力薔薇臥晚枝. 拈出退之山石句, 始知渠是女郎詩.)”

있다. 고려시대 시화와 문집에는 한유와 관련된 기록이 적게 남아 않지만 고려 문인들이 한유 시를 높이 여겨 적극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를 배워야 하는 이는 한유 시문을 꼭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한유 詩體를 터득한 이가 있었으며, 한유 시의 압운을 본 떠 작시에 사용한 이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유 시 학습과 관련된 기록이 비교적 많이 보인다. 서거정은 한유 시의 운자를 기준으로 다른 이의 시를 평가했으며, 자신도 한유 체를 본받아 작시하였다. 김육은 한유·이백·두보 세 사람의 시를 모아 『三大家詩全集』을 간행했으며, 후학들이 한유 시에게서 시의 역량을 배우기를 바랐다. 이식은 필력이 퇴보한 이들이 한유 시를 읽으면 급하게 병통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며 한유 시 학습방법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문인들이 한유 시를 한시 학습에 적극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와 조선 문인들이 한유 시를 수용한 양상을 고찰하였다. 고려 시기 중암거사는 시문에 빠어나 한유와 견줄 만 했으며, 고려 문인 오세재는 한유 시체를 터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세재의 시 「用人韻賦戟巖」에서 한유 시풍의 자유롭고 호방한 풍격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조선 시기 성삼문을 비롯한 다섯 명의 집현전 학사들은 「남산시」를 본 떠 「삼각산연구」시를 지었는데, 「남산시」의 구성과 체례를 본떠 128구의 장편의 시를 만들어냈다. 이황은 한유 시의 문구를 차용해 시를 지었는데, 시구를 적재적소에 맞게 인용해 시 속에 녹여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문인들은 한유를 애호하여 시 속에 한유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내었고, 한유의 인생 역정을 개인적으로 수용하였다. 고려 문인 이인로는 한유가 唐代 문단에서 문풍을 개혁시킨 공을 높이 샀으며, 조선 시기 이첨과 정약용은 대학자였던 한유가 조주로 유배가 곤란을 겪었던 일을 안타까워하였다. 특히 정약용은 한유를 사모하여 시를 통해 자신의 삶을 한유에 투영하였고 한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위로 받고 삶에 대한 의지를 다잡기도 하였다.

고려 문인들은 송시를 숭상했고 조선 문인들은 당시를 숭상했던 기풍 속에서, 한유 시는 고려와 조선 시기를 거쳐 고루 많은 문인들의 환영을 받았다.

우리 문단에서 한유 시를 작시의 모범으로 삼아 수용한 데는 한유가 문장가로서 이미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문인들은 시 속에 고문의 수법을 끌어들이는 한유의 작시법이 시에 호방함을 더해 주어 시의 필력을 제고시킨다고 여겼다. 이런 점들이 우리 문인들이 한유 시를 수용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文獻

- 趙鍾業, 『修正增補韓國詩話叢編』, 서울: 태학사, 1997.
- 李章佑, 『韓愈의 古詩用韻』, 서울: 영남대학교출판부, 1982.
- 金學主, 『中國文學史論』,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 李永朱, 『韓國詩話에 보이는 杜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趙鍾業, 『韓國古代詩論史』, 서울: 태학사, 1984.
- 趙鍾業, 『韓國詩話研究』, 서울: 태학사, 1991.
- 安大會, 『朝鮮後期詩話史研究』, 서울: 국학자료원, 1995.
- 柳晟俊 著, 『淸詩話와 朝鮮詩話의 唐詩論』, 서울: 푸른사상, 2008.
- 鄭良婉外 共著, 『朝鮮後期漢文學作家論』, 서울: 집문당, 1994.
- 차충환·김진영 역주, 『미수이인로시집』, 서울: 민속원, 1998.
- 정대림, 『한국고전비평사-조선후기편』, 서울: 태학사, 2001.
- 許捲洙, 「韓愈 詩文의 韓國에서의 受容」, 『중국어문학』 제9집, 1985.
- 李昌龍, 「韓國文學과 韓愈-比較文學的 見地에서 그材源研究-」, 『先淸語文』 제7권, 1976.
- 李昌龍, 「退溪詩에 대한 材源研究」, 『인문과학논총』, 1988.
- 朴現圭, 「李齊賢의 儒學受容과 古文唱導-韓愈·柳宗元의 古文運動과 比較하며」, 『東方文學比較研究叢書』3집, 1997.
- 朴禹勳, 「韓國詩話속의 李白·杜甫·韓愈」, 『詩話學』 7권, 2005.
- 金相洪, 「茶山の 韓愈柳宗元論」, 『東洋學』 제38집, 2005.
- 具本銜, 「李安訥의 韓愈杜甫 詩 학습의 실상과 의미」, 『韓國古典研究』 14권, 2007.
- 줄고, 「韓愈 詩의 散文의 특징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학』 제49집, 2006.
- 줄고, 「한유 시에 대한 한중 지식인의 평가 비교 연구」(李瀼의 『星湖僊說』과 趙翼의 『甌北詩話』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62집, 2010.
- 줄고, 「한국 시화 속의 한유 시 평가 연구」, 『중국어문학』 제64집, 2010.
- 鄭健行·陳永明·吳淑鈿 選編, 『韓國詩話中論中國詩資料選粹』, 香港: 中華書局, 2000.

- 錢仲聯,『韓昌黎詩繫年集釋』,臺北:學海出版社,民國74.
劉德重·張寅彭 著,『詩話概說』,北京:中華書局,1990.
高八美,『韓愈詩研究』,國立臺灣師範大學 博士論文,民國75.
한국고전종합DB ([http:// db.itkc.or.kr](http://db.itkc.or.kr))

Abstract

A Study on the adapting of the Han Yu's poetry
by both Goryeo and Jeseon scholar

Kim Ji-Young

Han Yu was one of the main leaders in the Classical Prose Movement at his time, Middle Tang. His achievement in Classical Prose Creation has a vital influence to the literary history and was highly appreciated.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on on his style of poem-composing has a controversial aspect. It's because he composes his poetry introducing prose elements into the poetry. Han Yu's poetry impacts greatly not only on Chinese literary world, but also on to Korean literary circle.

This paper consider how Korean scholar learned and accepted the Han Yu's poetry through the literary works of Goryeo and Jeseon scholar. In the beginning part of the paper, it introduces the learning-related aspects shown in the anthology of Goryeo and Jeseon writers. And then this paper consider how Han Yu's poetry was accepted in the literary works of Goryeo and Jeseon scholar. In the concluding parts of the paper, it deals with how Korean scholar reveals their sense of frustration on Han Yu's journey through his life expressed in his literary works and also how they accept his works individually into their literary works

Under the ethos of deep veneration for Song Poetry by Goryeo scholar and for Tang Poetry by Jeseon scholar respectively, Han Yu's poetry was welcomed evenly through the period of Goryeo and Jeseon by many writers.

Key words : Han Yu, Han Yu's poetry, Goryeo scholar, Jeseon scholar, learning, acceptance

투 고 일 : 2013. 09. 10. / 심 사 일 : 2013. 10. 20.~ 2013. 10. 27. / 게재확정일 : 2013. 10. 28.